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4월 9일 (제89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Only One주의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 시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신 28:13).

부모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시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 어서 누구의 아버지라 불리며 자랑하고 싶 어 하신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자랑하 신 것처럼.

못이 어설피 조금 튀어나오면 망치로 두드 러 맞게 돼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웃걸이로 쓴다. 어 떤 분야든지 어설피게 드러나면 시기 질투 의 대상이 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특 출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기대게 되 어있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10년 된 산삼 은 아무나 먹을 수 있고, 50년 된 산삼도 돈 만 많으면 먹지만, 100년 된 산삼은 사람 이 산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산삼이 사 람을 고른다. 그래서 나는 일등주의가 아닌 ‘Only One주의’를 외치는 것이다. 1등은 언제든 2등도 될 수 있고, 때론 어느 순간 추락할 수 있지만, 유일한 사람(Only One) 은 어느 누구와도 경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 문이다.

망치로 두드려 맞는 못이 되지 말고, 웃걸 이로 쓰임 받는 못이 되라. 그러려면 누구 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워 이겨야 한다. 노력이란 친구와 손을 잡고 인내의 한계와 싸워야 한다.

시샘하는 자를 탓할 게 없다. 이 사람, 저 사 람 때문이라고 욕할 것도 없다. 그저 내 자 신을 더욱 채찍질하다보면 절대 누구도 판 죽 걸지 못하는 Only One의 인물이 될 것 이다. 두드리는 망치를 탓할 것이 아니라 더욱 노력하지 않는 나를 탓해야 내일 웃걸 이로 거듭나게 된다.

답이 어중간히 높으면 다들 기웃거리지만 답장이 아주 높으면 넘겨다볼 생각조차 하 지 않는 법, Only One의 사람이 되어 세상 에서는 대접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맘 껏 자식 자랑하게 해드리자.

네 신앙의 녹을 제거하라

중국 발 황사에, 스모그, 요즘은 초미세 먼지까지 가세하여 공기 질이 매우 안 좋 은 환경이다. 아무리 세차를 해도 하루도 지나기 전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는다. 그럼에도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예전 처럼 더러운 차를 찾기가 어렵다. 주유소 마다 간이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세차 할 수 있는 시간 및 공간적 여유가 많아 진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는 차를 더러운 상태로 끌고 나가지 못할 만큼 운전자들 의 의식이 변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참 중요한 의식 의 변화다.

성경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빼는 자가 복

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다. “이기는 그에 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 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목사님은 휴대폰 배터리를 비유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잘 설명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자격 을 부여받았지만,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라도 배터리가 방전되어버리면 통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하지 못하면 죄에 가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 히 우리 신앙에 녹이 끼게 된다. 그 녹을

다. 3시간 넘게 계속되는 예배시간의 반 이상을 기도로운 할애한 날도 있었다. 기 도훈련으로 무장된 성도만이 악한 마귀 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시험 에 들지 않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넉넉히 누리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 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 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 느니라 하시니라”(막9:28-29).

답이 딱 나와 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음부의 권세들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도는 생명선이다(2017 춘계산상집회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자기 두루마기 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22:14).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를 믿는 자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방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 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 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 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우리 안에 가득한 죄 의 소원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예수 로 채워나가야 한다. 그렇게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줄 엄청난 보상

제거하지 않고서는 마지막까지 싸워 이 길 수 없을뿐더러 까딱 잘못하다가 영 영이 천국과 이별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래서 날마다 그날그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도생활이 하 나 님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비결이다. 해마다 신년축복성회에, 춘계산상집회, 하계산상집회, 추계산상집회, 그리고 기 회 있을 때마다 기도성회 등을 통해 우 리의 영을 지속적으로 깨우는 것은 바 로 우리 신앙에 녹이 끼지 못하게 하려 는 것이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 다. 기도가 떠난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 다. 기도는 생명선이다. 기도의 줄을 잡 아라!”

목사님이 이번 춘계산상집회에서 예배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말씀들이

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모든 시험을 이기고, 능력으로 충만하니 악한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 로 충만하니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 말고 목사님께 배운 대로 실천해보자. “내 설교는 쉬우나 실천하 기 어렵다.”고는 하셨으나 친히 모범을 보이셨으니 그대로 따라 해보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귀신을 쫓으며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보자. 녹이 낄 틈이 없을뿐더러 날마다 기쁨과 사랑으로 충 만한 천국이 여러분 삶속에 임하는 기적 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6:36~45)

신앙생활은 하나님 원대로 사는 것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

이것은 겹세마네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에 거기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겹세마네 동산에 오르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분이였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 분도 피할 수 있다면 그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갈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기도의 마지막은 위대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원대로, 그 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번민과 고통,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사55:8~9).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만한 인물이 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살았는데 그런 큰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라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에게 나가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주

들었을까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 고독, 고난의 눈물을 삼키며 오래 참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 말입니다(롬8:17). 예수님도 죽으실 날이 다가오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요12:2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히12:2),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마28:18).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고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요(창17:4), 복의 근

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으며(창12:2),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성

을 예비하셨습니다(히11:16). 노아 역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히11:7).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8:34).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내 뜻,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과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험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마7:14).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스스로 지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렐33:2).

물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멈추지도, 바꾸지도,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른 자를 통해 계속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하니 다윗을 통해, 가룟 유다가 배신하자 맛디아를 12사도로 세워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택정 받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복음이 사장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이를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처녀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제2의 마리아

를 택해 당신의 경륜을 이루셨을 겁니다. 언젠가 제가 꿈 꾸던 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꿈에 제가 지쳐 누워있으니까 주님이 저더러 “그래, 계속 쉬어라.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신 꿈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마른 막대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경륜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에 택정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이고, 순종하는 자는 더욱 복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개가 에스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가라고 할 때, 에스테가 이로 인하여 고민하자 모르드개가 에스테에게 딱 한 마디 던집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에4:14). 무슨 말입니까? ‘에스테, 네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는 게 네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초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공부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배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빌2:21).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영원히 사는 세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나타날 때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얼른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거든 지체하지 말고 어린 나귀처럼 아직 준비되지 않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고난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뒤에 오는 큰 영광을 미리 보십시오. 내 뜻대로 행하다가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이왕이면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내 뜻을 이루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갑시다. 겹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게 살아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생존의 법칙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 저마다 생존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어슬렁거리다가 눈에 띄는 대로 무턱대고 사냥감을 덮치는 것이 아니고 5단계 사냥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자는 1단계로 관찰을 합니다. 사전에 사냥감의 동태를 면밀하고 치밀하게 관찰합니다. 즉, 사냥감의 위치, 이동 방향, 풍향, 속도, 거리 등을 파악합니다. 2단계로 사자는 사냥목표를 정합니다. 수많은 사냥감 중에서 오직 단 하나의 사냥감만을 선정합니다. 사슴을 목표로 정하면 토끼에는 눈을 주지 않습니다. 3단계로 사자는 신중하게 목표에 접근합니다. 사냥감이 사자의 체취마저 느끼지 못하도록 바람을 마주보며 천천히 조심조심 숨죽이고 최대한 가까이 접근합니다. 4단계로 사자는 전광석화와 같이 목표를 공격합니다. 사냥 과정에서 주변에 다른 목표 사냥감이 앞뒤로 이리저리 뛰면서 주의를 분산시켜도 오직 처음 정한 단 하나의 사냥 목표에 집중하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사냥 목표의 급소를 공격하여 제압합니다. 5단계로 사자는 다음 사냥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사냥감을 무리와 함께 나누어 먹은 후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한 후 다음 사냥에 임합니다. 이러한 사냥법에도 불구하고 사냥 성공률은 20% 이하라고 합니다. 낮은 사냥 성공률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사자는 태어난 10마리 중 1마리만이 생존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분야에서나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생존 방정식을 사자의 사냥법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유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1단계로 지식과 해당 분야의 발전추세, 세계적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2단계로 성취할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3단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4단계로 어떠한 환경적 제약과 문제점에 부딪치더라도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모든 열정을 다 투입합니다. 5단계로 성취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다음 도약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생존의 법칙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생존 목적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에 생존의 의미를 두고, 믿음을 굳게 꾸준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과 인내로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 신앙논객 ::

나의 사명(使命) 만족도는?

국내의 한 고용관련 기관에서 작년 하반기 621개의 직업 종사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 만족도 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6개의 영역별 만족도를 합산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6개 영역은 각각 이렇습니다. 먼저 해당 직업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 가능성, 그리고 급여에 대한 만족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 직업 지속성, 그리고 근무조건과 사회적 평판,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가 바로 그 영역들입니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직업은 판사였고, 일반인에게 조금은 생소하지만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직업인 도선사가 2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위를 차지한 것은 대학교 총장이나 의사가 아니라 바로 목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잠시 두 눈을 의심했지만, 6개 영역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 순위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사명(使命)으로 알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주의 종이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사자만큼은 자신의 일에 100% 만족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 수 없으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급여에 대한 것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몰라도 하늘에 보화가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지속성에 있어서는 “주의 종은 은퇴가 없다!”고 강조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대신합니다.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와 같은 근무조건은 각자의 부트심과 사역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근무조건일 것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하고 싶다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저렇게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사명(使命) 만족도가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제 삶의 모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입니다. 그리고 제 달란트는 영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중고등부 영상팀원이 되어 지금은 중고등부 영상팀 교사로 11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날 공부에 대한 열의는 컸지만 학교나 학원을 갈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SF필름스쿨이라는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때 목사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성경인물의 하나님이 아닌 ‘은성의 하나님이셔서’라는 말을 되뇌면서 너무나 감사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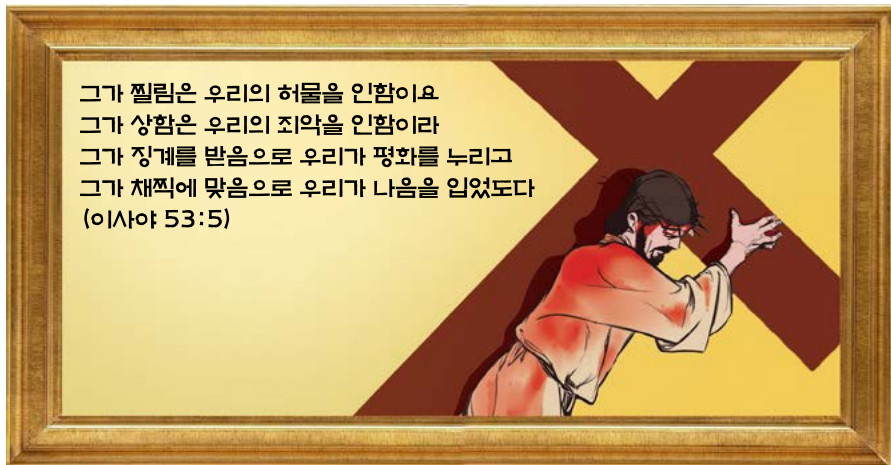
시간이 지나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도 없는 터라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걱정하고 있지?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고민과 불안들이 모두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으로 옮겨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동시에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냐고요? 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저 일 없는데요?” 하면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한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은성

es2563@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지난 주 방송인터뷰 차 국내 최고 상담심리학의 대가인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근 KBS 육아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유명한 인사였다. 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상담학과 기독교 상담학을 같이 전공하셔서 많은 교회를 다니며 청년 및 장년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더더욱 선생님의 조언들을 나중에 교회에 가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게 되었다. 이 날의 인터뷰 주제는 ‘제대로 된 칭찬하기’였는데, 제대로 된 칭찬을 위해서는 가정이나 회사 등등에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대상이 칭찬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냥 ‘잘했어요’, ‘좋네요’가 아닌 ‘엄마는 윤아가 동생을 돌보아주니 엄청 행복해’, ‘박 대리님의 아이디어로 우리 프로젝트가 대박 났어요. 고마워요!’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칭찬 대상들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보니 성경 속에 예수님은 사람

과 사물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마11:11)라고 하였고, 자신의 하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셨다. 또 미물인 까마귀와 백합화에게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눅12:24, 27)고 칭찬하셨다.

올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은 내가 인정받기 전에, 남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잘 쉬 줄 아는 능력

지금껏 제가 읽은 책들 중 대부분은 대학 생 때 읽었던 것들입니다. 그 땐 일 년에 백 권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피라 이터가 된 후로 몇 년 간은 도통 책을 읽 지 못했습니다. 바빴던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책 읽는 시간이 마치 버리는 시 간 같았거든요. 얼른 일에 능숙해져야한 다는 조급함 때문에 광고와 관련된 일 외에는 전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 지고 한가한 일 같았어요. 책이든 신문이 든 모든 텍스트를 볼 때마다 여기에서라 도 무언가를 얻어야한다는 압박감이 생 겨서 책을 읽는 게 그 자체로 스트레스 가 되었지요.

그러다 4년 전쯤 어느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추천해준 두 권의 책이 흥미로워서 퇴근길에 바로 도서관에 가 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서 밤을 새서 단숨에 다 읽어버렸지요. 대가 를 바라지 않는, 그저 읽는 게 즐거운, 독 서의 순수한 재미를 다시 찾게 된 순간이 었지요. 솔직히 책읽기가 당장에 학교 성 적을 올려준다거나 명카피를 쓸 수 있게 즉각적인 영감을 주진 않잖아요. 하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지식과 좋 은 카피를 쓸 수 있게 해준 저만의 특별한 감수성은 대학생 때 읽은 많은 책들의 집 합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 같아요. 버 리는 시간 같았던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제 인생에 힘이 되고 있던 거지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 분에 어제 하와이에 잘 도착했습니다. 지 금은 하와이의 동네 도서관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사실 어릴 때 어렵게 살았던 저로서 일 년 동안 벌 수 있는 연봉을 포 기하고 2년 동안 저축한 돈을 지출하며 영어공부를 하고 세계여행을 한다는 게 꽤나 출혈이 큰 선택이었어요.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집 으로 이사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선택이 겠지요. 하지만 ‘난 영어를 절대 못할 거 야, 외국에서 살 일 따윈 없을 거야’ 라고 평생 한계를 그었던 일을 깨고 싶었고, 또 성실하게 살아온 제 자신에게 최고의 안 식년을 주고 싶었습니다. 1년 뒤, 차나 집 같이 손에 잡히게 남는 건 없겠지만 앞으 로의 인생에 두고두고 보약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잠깐 쉬는 것조차 죄책 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뒤쳐 질 거 같고요. 자신을 위해 작은 취미 생 활 하나 갖는 것이 돈 낭비처럼 느껴지 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신문 에서 본 글인데요, 지금 우리는 피로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 지만 앞으로 점점 더 잘 쉬 줄 아는 능력 이 중요해질 거라고 합니다. 일이나 공부 를 잘하는 능력만큼 잘 쉬는 것도 능력이 라는 거지요. 그것이 당장에는 시간을 축 내고 버리는 것 같지만, 두고 보면 우리 를 오래오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에는 스스로 안식하셨 겠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 오늘을 살아가 는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다 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 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 식하시니라”(창2:3).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1961년 구소련의 게르만 티토브는 유리 가가린에 이어 두 번째로 우주비행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우주여행을 다녀온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아보 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주여행을 다녀온 미 국의 우주인 맥디브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광경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미련한 자 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 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믿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 게 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 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 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 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 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

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것이 아니니라” (히11:1~3).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 나서 영생복락을 얻는 길은 오직 한길입 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며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 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 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 니라 우주만물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 다. 믿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날마다 주님 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치주염

45세 주부 심 씨는 최근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반복되어 동네치과를 찾았다가 치아를 여러 개 뽑고 임플란트 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방사전 사 진을 촬영하고 잇몸 검사를 받은 후 만 성치주염으로 진단 받았고, 어금니 4개 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치료를하기로 결 정했다. “양치할 때 피가 좀 나고, 피곤하 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잇몸이 가 끔 부었지만 별다른 증상이나 불편감이 없었는데 치아를 4개나 뽑고 임플란트 를 해야 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충 치도 별로 없고 치아는 좋다고 자부했었 는데...” 이렇게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질환을 치주염이라고 한다. 치주 염은 치아를 둘러싼 조직에 생기는 질환 이다. 치아주위조직은 잇몸, 잇몸뼈, 치 아를 둘러싼 인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치아와 잇몸뼈는 인대에 의해 연결되는 데 이것을 치주인대라고 부른다. 치주인 대는 치아 주위를 감싸는 쿠션이라고 생 각하면 된다. 얼음이나 사탕 같은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이 치주인대가 충격을 완 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이 인대는 내 부에 많은 감각신경섬유가 있어 씹는 힘 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한 치아나 잇몸 뼈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치주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치태이다. 치 태가 쌓여 잇몸이나 잇몸뼈가 공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치태는 쉽게 말 해 세균덩어리이다. 입안은 습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세균이 잘 자라는 환경 이다. 침과 음식물이 치아에 달라붙은 뒤 에 입안에 있던 세균들이 응집되어 치태 를 이루게 된다. 치태 약 1mg에 1억 개 이상의 세균들이 응집되어 치태를 이루 게 된다. 치태는 물로 입을 행구는 것만

으로는 제거되지 않고 칫솔질을 통해서 만 제거할 수 있다. 만약 칫솔질에 의해 치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 으면 침의 작용에 의해 점차 석회화되어 딱딱해지는데 이것이 치석이다. 치석은 칫 솔질로 제거할 수 없고 기구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스케일링이 다. 치석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크 림 같은 흰색,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으 로 보이고 특히 아래 앞니 안쪽이나 위 어금니 볼 쪽에 잘 생긴다. 치주염을 예 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인 치 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구강관리이다. 바 른 칫솔질을 하고 건강한 잇몸을 가진 사 람이라도 6개월에서 1년 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 치주질환을 예방하도 록 하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믿음으로 행하면!

‘경제수명 2050시대’는 노령화 사회에 서, 자신의 경제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 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경제수명’이 란 제대로 대접 받으며 근로시장에서 일 할 수 있는 나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경 제수명 2050이란 20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할 때 50년을 일할 수 있는 시대를 뜻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 민들은 54-68-77시대에 살고 있습니 다. 54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68세에 근로시장에서 은퇴하여 77세까지 산다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대부터 50년 을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야 할까?’ 라고 반문하며, 단순히 생계형 노동이 아닌, 경제수명을 늘리는 일은 인 생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부터 시작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20대에는 50년간 일할 일터를 찾고, 50 대라면 20년간 일할 프로그램을 만들라 고 충고합니다. 인생의 제2막을 화려하 게 열어젖힐 노하우로, 20대에는 보수보 다는 경제력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찾 고, 30대에게는 전문성을 키우며 자신의 역량을 집중 개발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충고도 합니다.

노후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오직 자녀교육을 위해 일생을 투자하며 살아 노후대책은 오직 자식뿐이었던 90 세의 한 노인이 “이렇게 오래 살 줄 알 았더라면 70세부터라도 목표를 세울걸.” 하며 후회하더라는 말을 던져주며, 고령 화 사회에서 내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 어 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이 책은 제시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친구와 함께 했던 적 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후대책과 사후대책은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님 앞에 시간을 정성껏 투자하여 사는 날 동안 선한 생명나무를 거둘 것이며, 물질 의 씨앗을 충실히 투자하여 사는 날 동안 풍요로움을 거둘 것이며,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투자하여 믿음의 열매와 면류관 을 거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는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만드 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만족케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